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예비역 대령 장용관
MSO 세계 선교국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이사야 6:8)

저는 위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파송되어진 선교사의 각오로 살고자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170 여개국에 28,000여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말 기준하여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 유학생 등 나그네 된 자들이 220 여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국민의 4.5%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나그네 된 자인 외국인을 보살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선교입니다. 해외에 나가 살면서 직접 선교하지는 못해도 국내에 단기간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유학생,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과 이민 2세등 이주 배경인구가 5% 이상이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복음 전도가 대단히 중요한 선교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여년간 MSO에서 중앙아시아 팀장으로 선교사역을 하게 되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오가며 STANDART Con.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MEO 프로그램 참가, 동아시아 지역대회참가 등을 위해 MCF 회원들이 한국에 올 때 마다 모든 일에 우선하여 입국 시 공항영접, 홈스테이, 출국 시까지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한국 내에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 근로자들과도 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선교관련 집회, 행사 등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즈음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동안 저는 너무 많이 도와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주님께서 누군가를 도우셔야 할 때에 저를 보내어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주님 나라 확장에 도우미로 사용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보여 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